

문화볼거리 상설화... '광주의 브라이언트파크'로 키우자



뉴욕 맨해튼의 브라이언트 파크는 연중 음악회, 시 낭송회,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볼거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심터로 사랑받고 있다. /뉴욕=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8>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1 시작 & 금남공원

매년 이맘때면 5년 전 뉴욕 한복판에서 접한 영화의 감동이 떠오른다.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스팅’(The Sting·1973년 작)이다. 1936년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 경단 두목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주연배우의 명연기와 경쾌한 피아노 OST, 그리고 허를 찌르는 마지막 반전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누구나 아는 클래식 영화를 새삼 운운하는 건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어서다. ‘스팅’을 만난 곳은 뉴욕의 영화관이 아닌 공원이었다. 맨해튼 42번가에 자리한 브라이언트 파크(Briant Park) 필름 페스티벌에서였다. 맨해튼의 미드타운에 위치한 입지조건을 살려 매년 6~8월(매주 월요일 밤 8~10시) 추억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도심속채

매년 3월~11월까지 요일별로 패션쇼, 음악회, 영화시사회, 전시회, 독서회 등이 펼쳐지는 시즌제 프로그램을 상설화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브라이언트 파크는 뉴욕인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도심속 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뉴욕에 브라이언트 파크가 있다면 광주에는 사직공원과 금남공원이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볼거리라고는 나무와 꽃이 전부(?)였지만 최근 주변의 자연경관을 끌어 들인 건축조형물이 들어서면서 ‘문화쉼터’로 변신중이다.

시락해 가는 구도심의 사직공원은 지난 6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거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버려진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 등 5곳을

흡하다. 생태와 예술을 접목시킨 ‘하드웨어’가 일 시적인 볼거리를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연제든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상설 콘텐츠가 필요하다. 브라이언트 파크가 연중 뉴욕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프로그램 덕분이다. 사직공원의 5개 작품을 둘러보는 투어는 물론 음악회, 페스티벌, 영화상영 등 ‘공간’을 활용한 문화이벤트들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남공원은 문화예술공원으로 성장할 ‘씨’를 띄워가고 있다. 다른 아닌 광장음악회(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다. ‘도심의 야외 음악회’를 모토로 지난 2006년 바리톤 정찬경씨와 아내 한유진(공연기획자)씨가 첫선을 보였다. 다음달로 50회를 맞이하는 광장음악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공연장이 아닌 광장으로 나와 관객들과 만난다. 평소 클래식 음악회에 답을 쌓고 살던 사람이라도 우연히 공연이 열리는 시각에 금남공원을 지나간다면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10월, 멋진 어느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번째 음악회는 정씨 부부의 ‘소박한’ 바람에 보답이라도 하듯 200여 명의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객석에 앉았다. 이들 중 일부는 매번 음악회를 찾는 ‘열혈팬’이자 무대준비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서포터즈가 됐다.

무엇보다 광장음악회가 특별한 건 지역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광주시로 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씨 부부와 음악회에 뜻을 같이하는 예술가들이 십시일반으로 꾸렸다. 그렇다 보니 한달에 한번 무대를 여는 것도 벅하다. 광장음악회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매주 한번씩 관객들과의 만남이 필요하지만 예산 등의 어려움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작·금남공원을 광주의 브라이언트파크로 키우기 위해선 ‘장소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광주시가 내년부터 총 60억원을 들여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랜드마크로 추진하는 ‘5·18 민주·평화·녹색광장’(문화전당~금남로 4거리까지 총 518m 구간 잔디조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유진씨는 “금남·사직공원이 광주의 명소가 되기 위해선 제2, 제3의 광장음악회와 같은 문화볼거리들이 끊이지 않고 펼쳐져야 한다”면서 “향후 이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전달하는 별도의 기구를 조직해 거시적인 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음악회·페스티벌·영화상영으로 시민 끌어 모아야

‘장소성’ 활용 콘텐츠 개발·프로그램 전담기구 필요

다. 이날 뉴욕인들은 간단한 먹을거리와 담요를 챙겨 행사 시작 2~3시간 전부터 삼삼오오 공원 잔디 위에 모여 앉았다. 이윽고 영화가 시작되자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올드무비를 즐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매주 목요일엔 ‘브로드웨이 인 브라이언트 파크 페스티벌’이 관객들을 불러 모은다. 한 해 브로드웨이에서 각광받은 뮤지컬 넘버들을 한자리에서 들려주는 이 갈라콘서트는 공짜로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9월에 접어들면 브라이언트 섬머 페스티벌의 바통은 브루클린 필 하모니와 관현악단 ‘바지뮤직(Barge music)’이 건네 받는다.

브라이언트 파크가 처음부터 뉴욕의 문화명소였던 건 아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마약 거래상들과 노숙자들의 소굴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 1990년대 초 당시 부통령 클린턴이 뉴욕시장은 브라이언트 파크와 같은 맨해튼의 레드존(red zone)들을 ‘예술’로 정화시켰다. 이와 함께 브라이언트 파크 운영위원회(www.briantpark.org)를 발족해

리모델링했다. 사직공원의 장소성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김영준의 ‘스텝’(구 KBS 방송국 입구 T자형 도로절개지), 이민아의 ‘기슭’(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옆 산책로), 조민석의 ‘빈집’(과교라 및 배드민턴), 박동준의 ‘흔적’(공원관리사무소), 신혜원의 ‘흐르는 풍경’(옛 수영장부지)은 예술과 생태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원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금남공원 역시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으로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사무지구로 이전하면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 온 금남공원은 지난해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풀리 프로젝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스페인 출신의 건축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의 ‘유동성 조절’이 바로 그것. 마치 시골의 돌담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은 주변과의 조화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거장의 ‘본신’이라는 화제성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하지만 사직공원과 금남공원이 문화가 쉽지는 ‘도시의 허파’가 되려면 이들 조형물 만으로는 미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영화상영을 기다리고 있는 뉴욕인들의 모습.



사직공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김영준의 ‘스텝’



매월 셋째주 토요일 금남공원에서 열리는 광장음악회.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죽이
맛집
광주광역시
www.gju.go.kr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oo-jiang.com